

국정 대수술 초읽기... 인적 쇄신 어떻게

“더 이상 실패없게” 3두마차 동시 교체 할 수도

〈총리·당대표·실장〉

국민 눈높이·도덕성·청렴성 가장 중시 통합 차원 호남 인사 대거 기용 분석도

출범 100일을 갖 넘긴 이명박 정부의 첫 개각을 앞두고 인적쇄신 폭과 인선 방식 및 기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실패가 취임 초기 국정난맥의 최대 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2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사 원칙은 기존과는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적쇄신 폭은=새로 출범한 정부가 불과 3개월여 만에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맥을 드러내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은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대규모 인적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단 내각에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2명이 더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 폭이 클 것이다.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의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혼선을 둘러싸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수석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

석은 아니지만 ‘사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부길 비서관도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 ‘부 톱’의 교체 여부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한승수 유임, 류우익 교체’ 분위기가 강했으나 최근 ‘박근혜 총리 카드’가 급부상하면서 교체에 비중이 더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 경우 여당 대표 교체와 함께 여권의 빅3가 교체되는 메르데급 권력이동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박근혜 총리 기용은 성사될 경우 여권 내 다양한 계파를 끌고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통령-총리 권력 분점형 정부 구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념적으로 대척점에 선 진보진영 인사들을 끌어안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어, 이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선 기준 및 방식은=초대 내각이 ‘강부자(강남 땅부자), ‘고소영(고려대·소방교회·영남)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 점에서 이번 개각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와 ‘도덕성 및 청렴성’이 인선의 기

준이 될 전망이다.

정치인, 관료 출신 중용을 접치는 시각이 우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의정활동과 공직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된 인물을 발탁함으로써 도덕성 논란을 피해 갈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또, 정치인 기용은 새 정부에서 나타난 취약한 정치력, 정무기능을 보완하려는 측면도 강하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공식기구인 인사비서관실을 통해 인선 실무를 진행하되, 이와는 별도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의견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직접 후임자들을 낙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인사 중용되나=초대 내각이 영남권중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호남과 충청 출신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만큼 차체에 이 지역 출신들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국민적 화합을 이루고 내각의 기계적 균형성도 기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호남 배려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식인 감사원장에 호남 출신을 선임, 개각 때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 전 검찰총장과 임상규 전 농림부장관 등이 감사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 서갑 위원의 청와대 진출설 등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與 권력지형 바뀌나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들도 모두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10일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권의 권력 지형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사실상 2인자로 불려온 류실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왕비서관’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이 대통령을 보좌하던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의 사표 제출로 청와대 내 힘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여권의 권력 지도는 한나라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득 의원과 이 대통령 출병 1등 공신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 소장파를 대표하는 정두언 의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여기에 청와대에서는 류우익 실장이 또 다른 권력의 한 축을 차지했다.

이 중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경우 총선 패배 이후 미국행에 나서면서 일단 한발 비켜서 있는 상태다. 이상득 의원의 경우는 자신의 보좌관 출신

- 류우익·박영준 사표로
- 청와대 힘 공백 불가피
- 박희태·홍준표 역할 커
- 당서 국정 주도권 쥔 듯

인 박비서관의 퇴진으로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권력 다툼(?)’의 진원지인 정 의원도 윤신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 빈 공간을 누가 차지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한나라당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형 대표로 유력한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이 차기 당권을 잡을 경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정치 특보 역할까지 담당하는 당 대표 이상의 역할이 예상된다. 박 전 부의장은 이상득 의원이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과 함께 원로그룹으로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조언을 해 왔다. 또 홍준표 원내대표-임태희 정책위의장-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신주류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큰 형인 이 의원의 경우 여전히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번 위기 국면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 의원 등 원로그룹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인적쇄신이 대폭으로 되면서 기존 측근들이 2선으로 후퇴한다 하더라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만시지탄... 조각 통해 국정 바로잡아야”

■ 총리·각료 사의 야권 반응

야권은 10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각료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인사와 국정 실패를 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조각수준의 개각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불과 100일이 지난 정권이 청와대 수석과 내각의 총사퇴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정권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 불행”이라고 논평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이번 내각 총사퇴가 재협상 관철과 국민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이어져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인사쇄신만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권의 인적쇄신이 예고편만 요란한 졸작으로 끝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적 불신임을 당한 인사들을 재신임한다거나 그 밖에 그 나불 수준의 인사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라면 아예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내각 총사퇴는 국민의 요구였던 만큼 대폭적인 물갈이를 기대한다며 “혹시라도 인사청문회를 이유로 선별 수리하거나 교체 폭을 축소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을 대변인은 “만시지탄(萬時之歎)이긴 하지만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한 내각이 총사퇴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픈기념 고객감사 빅 이벤트 6.15 일요일 당일 오신 모든분께 주류, 안주 **공짜!**

남진
소찬휘
김지현(총리)
DJ.DOC
한혜진
듀크
미나

광주첨단라스베가스 나이트클럽

*웃찾사 흥행동 *위치: 첨단지구 롯데시네마 뒤 *예약: 062) 971-5815-7